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시장 확대 움직임



말레이시아의 마이뉴스와 한국의 CU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체인 마이뉴스는 한국의 편의점 CU와 손을 잡았다. 마이뉴스의 CEO Dang Tai Luk은 “이번 CU와의 움직임이 기업의 확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는 말레이시아 내 약 45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CU 편의점은 클랑 벨리와 같은 도심 지역에 2021년 초 첫 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0호점의 CU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의 이용 비율은 현재 35%이나 마이뉴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CU와의 합작으로 인해 2021년 말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현지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CU는 한국 편의점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많은 노하우와 내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말레이시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마이뉴스(MyNews)의 브랜드 이미지와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CU의 말레이시아 진출은 현재 과열화된 말레이시아 편의점 시장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시장

말레이시아의 편의점은 주로 거주자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주택가나 고속도로를 따라 입점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편의점은 무현금 결제 시스템, 무인 매장 등의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매장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등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편리하게 물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e-payment 시스템이나 무인 매장 시스템 등 다양한 지불 방법을 갖춘 편의점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편의점]

명칭	로고	개요
세븐 일레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최대 매장 보유 (약 2,387개) • 자체 브랜드 상품 (7-Select) 판매와 공과금 납부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 구매 금액 지불이 가능
99 스피드 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설립한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로 말레이시아 편의점 중 가장 매출액이 높음 • 다른 편의점들이 즉석식품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음
마이뉴스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53개의 매장이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와 조호르와 같은 도심 지역에 집중하여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최초 이동 편의점인 '모바일 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샌드위치, 삼각 김밥, 샐러드 등 다양한 즉석 조리 식품을 판매하고 있음
KK 슈퍼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K Group 계열 편의점 체인으로 말레이시아 외에도 인도, 네팔 등에도 체인점을 보유
패밀리 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밀리 마트는 일본계 기업으로 2016년 처음 쿠알라룸푸르에 매장 설립 • 말레이시아 편의점 최초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음 • 매장 내 어묵 판매대가 존재하며 직접 조리된 어묵을 바로 계산대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 • 다른 편의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조리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는 차별 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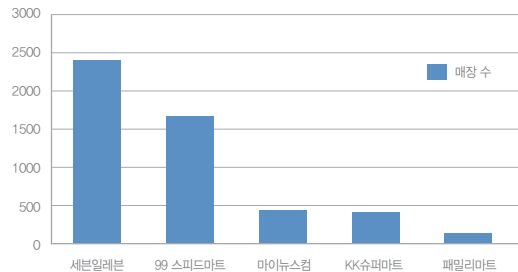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25~40세 사이의 전문직 종사자나 부부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소비자들과 학생들은 끼니를 거르고 간편하게 챙겨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시간이 길고 다양한 즉석식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대량 구매에서 소량 구매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도 파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편의점 브랜드별 특징

말레이시아 식품 업체들은 주로 전통 소매 채널과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 1인 가구가 증가 등의 생활 방식의 변화와 점점 비싸지는 근로 환경의 영향으로 구매가 편리한 편의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장 수도 그에 비례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용 소비자층이 제한적이다.

[말레이시아 내 편의점 매장 수]



Key Point

말레이시아의 CU 매장은 2021년 초 개점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구 증가와 소비 패턴의 증가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편의점들이 확장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MyNews와 CU의 합작은 말레이시아 편의점 시장의 경쟁을 더욱 과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U의 진출은 말레이시아 내 한국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의 확보로 한국 식품의 수출 기회가 늘어 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편의점의 특성상 신선 식품이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이 유통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❶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ynews-expands-bringing-korean-convenience-store-chai> ❷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ynews-operate-south-koreas-cu-stores-malaysia> ❸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execution-risk-main-concern-mynews-korean-gambit>
 ❹ 농림축산식품부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남방정책 말레이시아 편의점 트렌드 조사 및 시사점 ❺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자카르타지사, 2020 말레이시아 미니마켓[편의점] 시장 분석 및 한국 식품 진출 방안 모색